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4. Vol. 9, No. 3, 647-663

스트레스에 대한 정보처리 대처과정의 연령 차이[†]

김 정 모[‡]

대구대학교 특수교육 재활과학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과정에서 정보처리과정의 구성요인을 알아보고, 정보처리 대처과정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대학생과 성인노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판 정보처리과정지각 척도(K-PMPT)를 요인분석한 결과,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문제 상황에서 정보처리 과정은 느낌과 지각에 의존하는 정서적 과정,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결방법에 초점을 두는 합리적 과정, 그리고 즉흥적으로 과거의 습관적 정보에 의존하는 자동적 과정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처리과정지각 척도의 3 요인은 대학생과 성인노인의 전체집단에서 모두 공통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은 만족스러운 내적 일치도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를 통하여, 정보처리과정 지각은 생의 전 과정에 걸쳐서 나타나는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 되었다. 대학생과 성인노인의 정보처리과정지각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대학생과 성인노인은 서로 다른 대처과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은 문제 상황의 대처과정에서 합리적 과정을 자주 사용하는 반면, 성인노인은 정서적 과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리적 과정을 많이 사용하는 대학생일수록 정서적 과정은 적게 사용하나, 정서적 과정을 많이 사용하는 성인노인은 합리적 과정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인노인이 정서적 과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성인노인이 겪는 문제 상황이 정서적 과정을 요구한다는 “상황특수성(cross-sectional effect)” 가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과 같은 개인의 발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성숙” 가설을 지지한다. 논의에서는 성인노인의 정서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경험과 성숙에 관해 토의 하였다.

주요어: 정보처리과정지각 척도, 성인노인의 대처과정, 성숙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99-005-B0004)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정모,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 재활과학 연구소, 712-714. email:kjungmo@komet.net

스트레스의 정의에 관하여 일치된 견해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개인의 항상성(homeostasis)을 변화시키는 외부 환경자극(예, "life event", Selye, 1956)과 이 환경자극을 처리하는 개인의 생리적 요인(예, "individual susceptibility", Miller, 1953; Appley & Trumbull, 1986에서 재인용) 및 심리적 요인(예, "coping strategy", Lazarus & Folkman, 1994),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부적응 반응(예, "distress", Seligman, 1975)이라는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복잡한 개념이다(Kaplan, 1996, 참고). 초기 스트레스 연구에서는 개인의 신체적 질환과 심리적 부적응을 일으키는 외부 환경자극을 스트레스의 중요한 조건으로 강조 하였으며(장현갑, 1984; Appley & Trumbull, 1986; Selye, 1956), 스트레스란 생활사건과 같은 부정적인 환경자극이 개인의 항상성에 손상을 끼쳐 신체질환을 일으키거나(Selye, 1956), 격리나 사회적 고립과 같은 환경자극의 박탈이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인 과정으로 간주하였다(장현갑, 1984; Appley & Trumbull, 1986, 참고).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환경자극을 강조하는 Selye의 고전적인 스트레스 이론은 스트레스가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이 개입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 자극의 범위를 넘어서면 신체의 비정상적 상태가 일어나는 "전부" 아니면 "전혀"(all or nothing)의 단순한 모델을 가정하였다(Maison, 1975). 그러나 Wolff, Friedman, Hofer와 Mason(1964)은 동일한 스트레스 자극(자녀의 백혈병)에 노출된 성인 간에도 서로 다른 심리적 기대(회복가능성)에 따라 개인의 신체적 변화(코티졸 분비)가 차이가 있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 결과는 신체질환에 대한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후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스트레스 연구들은 외부 환경자극은 물론, 환경자극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중요한 스트레스 매개변인으로 강조하였다(Adler & Matthews, 1994). 심리적 대처과정에 대한 연구들(Aldwin, 1994; Folkman & Lazarus, 1980; 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에 의하면 대처과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차원의 인지-행동적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심리적 대처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자극에 대한 개인의 인지-행동적 활동의 결과로써 다양한 정서경험이 일어나는 과정을 의미한다(Folkman, 1984). 특히,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대처요인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면서 2차적인 평가과정을 강조하였다. 외부 스트레스 자극은 사회적 기술, 교육, 사회적지지 혹은 신념이나 성격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개인에게 위협적인 요인으로 평가되면(1차 평가), 이것은 개인에게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일으키는 문제 상황을 야기하게 된다. 문제 상황에서 개인은 보통 자신의 자원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는데(2차 평가), 스트레스 반응은 주로 2차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은 특정한 외부의 환경자극("과제수행")에 대해 과거 경험이나 행동양식("A 유형") 및 신념("완벽주의") 등의 1차적인 평가과정을 통하여 위협을 느끼거나("불안") 혹은 위협적이지 않은 신체적, 심리적 상태("만족감")를 경험하게 된다. 1차적인 평가의 결과 신체적, 심리적 문제 상황("불안")에 봉착하게 되면 다시 2차적인 대처과정이 필요하게 되며, 이때 2차적인 대처과

정이 적절하면 문제 상황이 해소되고(“불안감소”), 그렇지 않으면 문제 상황이 지속된다(“불안지속”). Lazarus와 Folkman은 2차적인 심리적 대처과정을 스트레스 대처전략이라 명명하고, 대처전략이란(1차 평가의 결과 나타난) 문제 상황에서 겪는 부정적인 정서나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인지적, 행동적 활동이라 정의하였다. 대처전략은 문제를 변화시켜 해결하려는 문제중심 대처전략과 문제를 직접 변화시키기 보다는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조절하려고 하는 정서중심 대처전략으로 구분되며, 문제 상황의 유형에 따라 대처전략의 효율성이 서로 틀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업수행이나 가족 간의 갈등에 관련된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중심 대처전략이 유용하나, 신체건강과 같은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정서중심 대처전략이 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Vitaliano, DeWolfe, Maiuro, Russo & Katon, 1990). 이 후의 연구에서는 문제중심 대처전략은 “문제 직면하기”, “사회적 지지추구”,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세우기”의 3가지 하위 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서중심 대처전략은 “정서조절”, “거리두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책임 인정하기”, “기분전환 행동”과 같은 5가지의 하위 전략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eLongis & Gruen, 1986).

최근에 Epstein(1990, 1994; Burns & D’Zurilla, 1999에서 재인용)은 인지-경험적 자아 이론(cognitive-experiential self-theory)의 관점에서 개인의 정보처리과정이 문제 상황의 대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문제 상황에서의 대처전략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 지향적 “행동전략”과 관련되어 있는데 비

해, 문제해결방식에 대한 정보처리과정은 대처전략을 선택하는 “인지적 과정”과 관련 되어 있다(Burns & D’Zurilla, 1999, 참고). 즉, 한 개인은 하나의 문제 상황(“과제수행의 실패”와 “불안”)에서 문제중심 대처전략(“과제수행 능력습득과 재도전”)이나 혹은 정서중심 대처전략(“기분전환”)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대처전략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문제 해결의 과정에 도달하는가 하는 정보처리과정도 문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심사숙고 한 후의 결정인가?, 혹은 즉흥적인 결정인가? 하는 “인지적” 정보처리과정에 따라 대처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심사숙고 한 후에 문제중심 대처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또는 정서중심 대처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처리과정과 대처전략은 서로 독립적이며, 대처전략이 과정적, 혹은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비해 정보처리과정은 개인의 구조적인 특성을 가정한다(Burns & D’Zurilla, 1999). Epstein(1990, 1994; Burns & D’Zurilla, 1999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정보처리과정은 경험적 체계와 합리적 체계로 구분된다. 경험적 체계는 신속하고, 직관적이며, 정서적 느낌에 의존하는 정보처리 과정이다. 합리적 과정은 완만하고, 논리적이며, 분석적인 정보처리 과정으로서 반응이 지연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Epstein의 합리적 체계를 대표하는 35문항과 경험적 체계를 대표하는 69문항을 요인 분석한 Burns와 D’Zurill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의 정보처리과정을 합리적 과정, 정서적 과정, 그리고 자동적 과정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과정이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문제 상황을 구체적, 단계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대안 행동을 고

려하는 논리적 과정이다. 정서적 과정이란 느낌, 직관과 같은 정서적 정보에 근거하여 논리적인 근거보다는 오히려 “직관적으로 옳은 것 같은” 행동을 추구하는 대처과정이며, 자동적 과정이란 자원의 부담이 없이 과거의 성공적인 대처 방식을 자동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Burns와 D’Zurilla의 연구결과, Epstein의 합리적 체계는 합리적 과정이라는 단일요인으로 나타났지만 경험적 체계는 정서적 과정과 자동적 과정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Burns와 D’Zurilla는 정보처리과정지각 척도(Perceived Modes of Processing Inventory, PMPI)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합리적 과정과 정서적 과정, 그리고 자동적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은 모두 .80-.90 사이의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주에 걸친 재검사 신뢰도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 = .56 - r = .61$). 각 요인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는 자동적 과정은 합리적 과정과 독립적이나($r = .20$), 정서적 과정($r = .45$)과는 공통적인 내용을 포함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리적 과정과 정서적 과정은 서로 부적인 연관을 보여주었다($r = -.30$).

Epstein(1990, 1994; Burns & D’Zurilla, 1999)에서 재인용)은 두 가지 상이한 정보처리 과정은 개인 간 차이가 있으며 심리적 건강과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있다. 정보처리과정지각 척도의 타당도에 관한 연구결과(Burns & D’Zurilla, 1999), 합리적 과정은 문제중심 대처전략($r = .33, p < .001$)과 인지재구조화($r = .39, p < .001$)와 긍정적인 연관을 보여주고 있으나 정서적 과정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각 r

$= .14, ns, r = .11, ns$). 또한 정서적 과정은 감정 표현($r = .37, p < .001$)과 사회적 지지($r = .33, p < .001$)와 밀접한 관련을 보여주고 있으나 합리적 과정은 어떠한 연관도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각 $r = .14, ns, r = .12, ns$). 특히, 자동적 과정은 사회적 회피행동($r = .20, p < .01$)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합리적 과정($r = .14, ns$)과 정서적 과정($r = .10, ns$)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처리과정이 심리적 안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Cohen & Wills, 1985, 참고). 한편, 합리적 과정은 정적정서($r = .19, p < .001$)와 관련이 있는 반면, 정서적 과정은 부정적정서($r = .18, p < .001$)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연관성이 높지는 않지만, 합리적 과정이 긍정적인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정서적 과정은 부정적인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Watson, Clark & Tellegen, 1988, 참고). 성격특성과 관련하여 합리적 과정은 5 요인(Big Five, McCrae & Costa, 1992) 성격의 성실성과 높은 관련이 있는 반면($r = .35$), 정서적 과정은 외향성($r = .22$)과, 자동적 과정은 성실성($r = .23$)과 연관성을 보여주어 합리적 과정은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특성과 연관이 있는 반면, 정서적 과정은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성격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제 상황의 대처과정에는 개인의 정보처리과정 뿐만 아니라 성 차와 연령, 그리고 사회-경제적 위치와 같은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aylor & Aspinwall, 1996). 연령에 관해서는 성인노인이 경험과 지혜

가 성숙하여 문제 상황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성숙" 가설이 제기되었으나(Pfeiffer, 1977; Vaillant, 1977), 초기 연구결과들은(Lazarus & DeLongis, 1983; McCrae, 1982) 대처방식은 경험이나 성숙과 같은 개인의 발달적 특성과 서로 관련이 없다는 것을 지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노인은 젊은 성인과 비교하여 다른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lanchard-Fields & Camp, 1990; Folkman, Lazarus, Pimley & Novacek, 1987). 예를 들어 Folkman 등(1987)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젊은 성인과 비교하여 문제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추구 행동을 덜 보이나, 직접적으로 문제 상황을 대면하는 것을 회피하고, "마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거리를 두거나, 또는 문제 상황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정서중심 대처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Blanchard-Fields와 Camp(1990; McCrae, 1989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도 노인들은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문제 상황에서 정서중심 대처전략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McCrae(1989)는 성인노인은 젊은 성인과 동일한 스트레스 대처과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만약 대처과정에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문제 상황의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성인노인은 신체장애를 많이 겪고 가족, 친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별과 같은 상실을 많이 경험한다. 신체장애와 상실과 같은 문제 상황에서는 문제중심 대처전략보다는 정서중심 대처전략이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는데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Vitaliano et al., 1990, 참고), 성인노인들은 정서중심 대처전략을 많이 사

용하게 된다(McCrae, 1989). 문제 상황을 상실, 위협, 도전의 3 유형으로 통제 하였을 때, 성인노인은 나이가 많을수록 "믿음에 근거하는"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나 "마음을 안정시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서중심 대처전략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를 근거로, McCrae는 노인들이 정서중심 대처전략을 주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노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 상황이 문제중심 대처전략보다는 정서중심 대처전략을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상황특수성(cross-sectional effect)"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McCrae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직면하는 문제 상황이 일반 성인과 차이가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검증하지 않아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처전략의 차이에 관한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폭식행동을 보이는 여대생(김혜은, 박경, 2003)과 음주를 많이 하는 여대생(한금선, 양승희, 전경규, 2003)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중심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연령에 따른 대처과정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것이 없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문제 상황에서 대처전략 뿐만 아니라 정보처리과정도 심리적 안녕 및 신체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보여주고 있다(Burns & D'Zurilla, 1999; Lazarus & Folkman, 1984). 또 성인노인과 일반 성인 사이에 대처전략은 물론 정보처리과정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olkman et al., 1987; McCrae, 1989; Pfeiffer, 1977; Vaillant, 1977). 그러나 연령에 따른 대처과정의 차이를 설명하는 관점에서 성숙 가설(Pfeiffer, 1977; Vaillant, 1977)과 상황특수성

가설(McCrae, 1989)이 서로 대립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정보처리과정지각 척도의 한국어판(K-PMPI)에 대한 구성요인을 살펴보고 요인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문제대처방식으로서 정보처리과정 지각은 모든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고(Lazarus & DeLoggis, 1983), 개인의 구조적인 특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Burns & D’Zurilla, 1999 참고), 연령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구성요인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연구(Burns & D’Zurilla, 1999)에 기초해서, 본 연구에서도 요인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과 5 요인 성격과의 관련성을 검토할 것이다. 대처과정에 관한 연구 결과(McCrae, 1989, 참고), 정보처리과정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 연구들(Pfeiffer, 1977; Vaillant, 1977)에 의하면 성인노인은 사회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정보처리과정에서 정서적 과정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처리과정에 관한 “성숙” 가설(Pfeiffer, 1977)과 “상황특수성” 가설(McCrae, 1989)을 검토할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연구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230명으로 대구소재 대학생 성인 158명(남자 48명, 여자 110명)과 대구 시 소재 노인대학에 재학 중인 60세 이상의 성인노인 72명(남자 33명, 여자 39명)으로 구성되었다. 대학생 집단과 성인노인 집단의 평균 나이와 표준 편차는 각각 21.3세(1.8)와 66.3세(2.3)로

써 각 연령집단은 나이의 편차가 크지 않은 동질적인 집단이다.

연구도구

한국판 정보처리 대처과정지각 척도(Perceived Modes of Processing Inventory, K-PMPI)

정보처리 대처과정지각 척도는 Burns와 D’Zurilla(1999)의 정보처리과정지각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합리적 과정 12문항과 정서적 과정 10문항, 그리고 자동적 과정 10문항 등 모두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로 번안한 문항은 80명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문항을 수정하였다. 사전 문항분석에서 변별도가 .3을 넘지 않는 3문항은 다시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여 수정한 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5점까지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채점하였으며 가상적인 문제 상황에서 개인이 “일반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일반적 특성으로서의 문제 대처방식을 측정하고 있다(부록 참고).

5요인 성격(NEO-Five Factor Inventory, NEO-FFI)

5요인 성격은 Costa와 McCrae(1989)의 5요인 검사(NEO-Five Factor Inventory, NEO-FFI)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NEO-FFI는 Costa와 McCrae(1992)의 개정판 5요인 성격검사(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PI-R)와는 달리 각 성격요인에 하위 6개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각 성격요인에 12문항을 포함한 6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두 240문항으로 구성된

NEO-PI-R보다는 검사수행의 부담이 적다. 5요인 검사문항은 개정판에 포함되어 있으며 각 문항들은 5점 척도로(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측정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전에 3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항분석에 의하면(김정모, 준비중) 5요인 성격의 각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87 - .93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

대구 소재 심리학 수업을 듣는 학생과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성인노인을 대상으로 검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정보처리 대처과정지각 척도와 5요인 검사문항을 함께 편집하여 5요인 검사와 정보처리 대처과정지각 척도의 순서로 배열하여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가정에서 작성한 후 1주 후에 다시 수거되었으며 나이와 성에 관한 개인 정보가 없는 설문지는 통계처리에서 제외되었다. 설문은 무기명으로 작성되었으며 완성시간은 평균 20분이 소요되었다. 필요한 경우 개인의 사적인 기호를 표시하도록 하여 검사결과를 개인적으로 해석,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통계처리

자료 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 10.0을 사용하였으며 정보처리 대처과정지각 척도의 신뢰도와 구성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과 내적 일치도 및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상관관계는 대학생과 성인노인사이에 정보처리 대처과정

지각방식의 교차상관과 성격요인 간의 상관을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성인 학생과 성인노인 사이의 정보처리 대처과정지각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석(MANOVA)과 개별 변인들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요인분석

모두 32문항으로 구성된 스트레스 대처과정지각 척도의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탐색적 과정에서, 주성분 분석이 요인의 이론적 구성을 잘 반영하여 주성분 분석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 고유치가 1보다 큰 요인으로서 모두 8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전체 분산에 대한 각 요인의 추정비율을 고려할 때 4개의 요인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2%, 16.9%, 7.7%, 4.9%). 그러나 4 번째 요인의 경우 추정 변량의 비율과 Scree검사의 고유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고, 문항들이 의미 있는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였으므로 3개의 요인을 선택하여 varimax 회전을 실시하였다. 대학생과 성인노인의 공통적인 구성요인을 확인하고 척도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학생과 성인노인을 각각 구분하여 실시한 요인분석을 비교한 결과, 각 요인을 기준으로 대학생 집단과 성인노인 집단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이한 11 문항을 제거한 21 문항이 최종 요인분석에 포함되었다. 원 척도에 포함 된 문항과 비교한 결과 정서적 과정에서 2문항, 합리적 과정에서 4문항, 그리고 자동적 과정에서 5문항이 제거 되었다. 최종 요인분석의 결

과 대학생과 성인노인 집단의 3개 요인은 각각 52.3%와 52.5%의 전체분산을 설명하고 있다(표 1. 참고). 표 1의 결과는 대학생 집단과 성인노인의 집단에서 3개 요인의 문항이 서로 유사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요인 I은 “스트레스에 대처할 때 느낌에 의존(문항 6)”하는 정서적 대처과정을 의미하고, 요인 II는 “문제해결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살펴보는(문항 19)” 합리적 대처과정, 요인 III은 “과거의 습관적인 대처과정을 사용하는(문항 29)” 자동적 대처과정을 나타낸다.

신뢰도

요인분석의 결과 추출된 3 요인(정서적, 합리적, 자동적 대처과정)의 신뢰도를 대학생과 성인노인을 구분하여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를 검토하였다(표 2. 참고). 표 2에 의하면 각 요인의 내적 일치도는 .79 - .88까지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과 성인 노인에게 있어서 정서적 대처과정의 내적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각 각 .88, .85), 자동적 과정이 가장

표 1. 대학생과 성인노인의 정보처리 대처과정 지각척도의 3요인과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N = 229)

문항	대학생(n = 157)				성인노인(n = 72)			
	I	II	III	h^2	I	II	III	h^2
6	.84			.719	.57	.41		.489
27	.77			.592	.75		.20	.596
5	.75	-.14		.591	.69	.43		.649
14	.71	-.23	.	.559	.66	-.27	.37	.650
1	.71	-.20	.	.536	.70	.26	-.27	.625
30	.70	-.12	.30	.596	.42	.18	.36	.338
12	.70			.505	.49	.33	.20	.390
20	.68			.473	.64	-.35	.10	.547
19		.80		.654	.17	.70	.38	.665
15		.73	.14	.551		.75		.577
18		.69		.481		.47	.43	.409
16	-.24	.70		.522		.69		.475
8		.63		.407		.53	.25	.343
26		.60		.409		.54		.355
2	-.27	.48	.20	.342	.38	.41	.26	.370
28	-.30	.47	.12	.325		.69	.14	.497
29		-.14	.81	.681			.74	.604
32			.80	.640			.86	.748
17			.79	.634			.70	.505
10	.11	.25	.62	.461			.59	.529
21	.13	.16	.61	.412			.64	.463
고유 값	4.5	3.5	2.8		3.4	3.8	3.6	
변량추정 값	21.6	16.9	13.8		16.5	18.4	17.5	

h^2 : 요인공통분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두 집단 공통으로 .79). 이 결과는 대학생과 성인노인의 정보처리과정지각 척도 요인들의 문항들이 서로 공통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인의 상호연관성

정보처리과정지각 척도는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고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Burns & D'Zurilla, 1999) 각 요인의 상호연관성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과 성인 노인사이의 요인의 상호연관성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 정서적 대처과정은 합리적 대처과정과 부적의 관련($r = -.29$)을 보여주고 있으나, 자동적 과정과는 아무런 연관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r = .04$). 또 합리적 과정과 자동적 과정은 정적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0). 그러나 성인 노인의 경우 정서적 과정과 합리적 과정, 그리고 자동적 과정은 서로 밀접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서적 과정은 합리적 과정($r = .38$)과 자동적 과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며($r = .47$), 합리적 과정과 자동적 과정도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r = .41$). 이 결과는 대학생의 경우 정서적 과정이 합리적 과정과 부적의 연관성을 보여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r = -.29$ 대 $r = -.30$), 성인노인의 경우 정서적 과정과 합리적 과정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어 선행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r = .38$ 대 $r = -.30$). 또 정서적 과정과 자동적 과정의 연관성은 성인 노인의 경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어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r = .47$ 대 $r = .45$), 대학생의 경우 아무런 연관성도 보여주지 않았다.

표 2. 대학생과 성인노인의 정보처리 대처과정 지각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N = 229)

	Cronbach's Alpha	
	대학생 (n = 157)	성인노인(n = 72)
정서적 과정(8문항)	.88	.85
합리적 과정(8문항)	.80	.81
자동적 과정(5문항)	.79	.79

표 3. 대학생과 성인노인의 정보처리과정지각 척도 간의 상관(N = 229)

		성인노인(n = 72)		
		정서적 과정	합리적 과정	자동적 과정
대학생 (n = 157)	정서적 과정	1.00	.38**	.47**
	합리적 과정	-.29**	1.00	.41**
	자동적 과정	.04	.20**	1.00

** 0.01

정보처리 대처과정지각과 5 요인 성격

대학생과 성인노인의 정보처리지각 척도와 5 요인 성격요인간의 연관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을 나누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대학생과 성인노인 두 집단 공통적으로 합리적 대처 과정은 성실성(각 각 $r = .37, r = .27$)과, 자동적 과정은 외향성(각 각 $r = .26, r = .26$)과 긍정적인 관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대학생의 경우 합리적 과정은 외향성($r = .17$)과 개방성($r = .21$), 그리고 신경성($r = -.26$) 과도 연관성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자동적 과정도 신경성($r = -.40$)과 성실성($r = .22$)과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에 정서적 대처과정과 성격요인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을 보여주지 않는데 비해 성인노인의 경우에 정서적 과정은 개방성($r = -.28$)과 부적인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

은 점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Burns와 D’Zurilla(1999)의 선행 연구 결과에서는 정보처리 과정지각 척도의 요인이 5요인 중 하나의 요인과 연관을 보이는 단일한 특성을 보이는데 반해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처리 과정 지각 요인은 5요인 성격요인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세대간 차이는 물론 여러 5요인과 혼합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과 성인노인의 정보처리 대처과정지각 척도의 차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성인노인은 문제 상황에서 정서적 과정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대학생과 성인노인의 정보처리지각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예상한대로 대학생은 합리적 과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성인 노인은 정서적 과정을 가장 많이 사

표 4. 성인 대학생과 성인노인의 정보처리대처과정 지각과 5요인 성격간의 상관표(N = 228)

		외향성	신경성	개방성	친근성	성실성
대학생 (n = 157)	정서적 과정	.07	.06	-.01	.10	.03
	합리적 과정	.17*	-.26**	.21*	-.01	.37**
	자동적 과정	.26**	-.40**	.00	.09	.22**
성인노인 (n = 71)	정서적 과정	.00	.13	-.28*	.01	.14
	합리적 과정	.20	-.00	-.08	-.19	.27*
	자동적 과정	.26*	-.18	.06	-.08	.13

* .05, ** .01

표 5. 집단간 정보처리 대처과정 지각척도의 집단간 평균과 표준편차(N = 228)

	정서적 과정	합리적 과정	자동적 과정
대학생(n = 157)	3.09(.51)	3.48(.56)	3.06(.57)
성인노인(n = 71)	3.56(.45)	3.33(.57)	3.24(.61)
전체	3.24(.54)	3.43(.56)	3.12(.59)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선형모델의 다변량 분석(MANOVA)의 결과 나타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F(3, 226) = 15.510, p < .001$) 정서적 과정과 자동적 과정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각 각 $F(1, 227) = 43.357, p < .000, F(1, 227) = 4.483, p < .035$), 합리적 과정에 대한 집단 간 점수는 10% 수준에서 차이를 보여 주었다($F(1, 227) = 3.479, p < .063$). 이 결과는 성인노인이 대학생에 비해 더 정서적 과정과 자동적 과정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며, 성인노인이 더 정서적 대처과정을 사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특히 집단 내의 정보처리 지각과정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집단을 분리한 대응표본의 t -검증 결과, 대학생의 경우 합리적 과정($M = 3.48, SD = .56$)이 정서적 과정($M = 3.09, SD = .51$)과 자동적 과정($M = 3.06, SD = .57$)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준 반면(각 각 $t(156) = 5.630, p < .001, t(156) = 7.437, p < .001$), 성인노인의 경우에는 정서적 과정($M = 3.56, SD = .54$)이 자동적 과정($M = 3.24, SD = .61$)과 합리적 과정($M = 3.33, SD = .56$)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각 각 $t(70) = 4.766, p < .001, t(70) = -3.338, p < .001$). 이 결과는 세대간 차이뿐만 아니라 세내 내에서도 우월한 정보처리과정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논 의

본 연구는 문제 상황에서 정보처리 대처과정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고 연령에 따라 대처과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

시되었다. 스트레스 대처과정을 인지적(정서적, 합리적, 자동적) 정보처리 관점에서 검토하였으며 연령에 따른 정보처리과정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어로 번안된 정보처리과정지각 척도는 Burns와 D'Zurilla(1999)의 원 척도와 동일하게 정서적, 합리적, 자동적 과정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생과 성인노인사이에 구성요인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문제중심 대처전략과 정서중심 대처전략 이외에 인지적 정보처리 관점에서도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보처리 과정은 요인의 동일한 구성내용과 만족스러운 내적 일치도에 의거하여(요인분석 참고) 삶의 전체과정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간주된다. 정서적 과정은 논리적이고 단계적인 판단 없이 적절한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직관적인 문제해결과정을 의미한다. 합리적 과정은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과정으로 자원의 부담은 많으나 사려 깊은 정보처리 과정이며, 자동적 과정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적 정보처리 과정을 나타내 주고 있다.

5 요인 성격과의 연관성에 있어서 대학생과 성인노인은 자동적 과정과 외향성과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공통적으로 $r = .26$). 이것은 활동적인 성격을 보이는 사람이 문제 상황에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또 자립적이고 목표를 잘 조직하는 성실한 사람일수록 심사숙고하는 합리적 대처과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인노인과 대학생사이에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정서가 안정된 성격특성을 보이는 대학생은 합리적이고 즉흥적인 대처과정을 사용하나 성인노인은 이러한 특징을 보여

주지 않는다. 이것은 대학생의 대처과정이 정서적인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성인노인의 대처과정은 정서경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서경험과 대처과정의 차이에 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한편, 대학생은 합리적 과정을 선호하는 반면 성인노인은 정서적 과정을 선호한다(표 5 참고). 이 결과는 성인노인이 정서적 과정을 많이 사용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즉, 성인노인은 문제 상황에서 느낌이나 직관과 같은 방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성숙 가설과 상황특수성 가설로 설명될 수 있다. “성숙” 가설에 의하면 성인노인은 삶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성숙과 같은 개인의 발달적 특성에 기초하여 느낌이나 직관과 같은 대처과정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특수성” 가설에 의하면 성인노인은 주로 변화의 여지가 적은 문제 상황에 봉착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는 과정보다는 느낌에 의존하는 정서적 과정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2 가지 상이한 가설을 검토하기 위하여 요인의 상호상관 행렬(표 3. 참고)을 참고하였다. 대학생의 경우에 정서적 과정과 합리적 과정은 원 척도의 관계($r = -.30$)와 유사하게 부적 상관($r = -.29$)을 보여주고 있다. 즉, 문제 상황에서 신중하고 사려 깊은 합리적 과정을 사용하는 대학생일수록 직감에 의존하는 정서적 과정을 적게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대학생의 정서적 과정이 합리적 과정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점수를 보여주는 것과 일치한다($t(156) = -9.456, p < .001$, 표 5. 참고). 그러나 성인노인은 정서적 과정을 많이 사용

하며 정서적 과정을 많이 사용할수록 합리적 과정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상황특수성” 가설과 배치되는 것이다. “상황특수성” 가설에 의하면, 하나의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논리적인 과정을 사용할수록 느낌과 직감에 의존하는 정서적 과정은 덜 사용하기 때문에 정서적 과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 상황과 합리적 과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 상황은 부적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성인노인은 합리적 과정에 비해 정서적 과정을 많이 사용하나 ($t(71) = -3.338, p < .001$), 정서적 과정을 많이 사용할수록 합리적 과정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 = .38$). 이것은 성인노인은 정서적 과정은 물론 합리적 과정도 필요한 다양한 문제 상황에 봉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학생과 비교하여 성인노인이 정서적 과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특성을 암시하고 있다. 즉,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서 투명기능, 경험, 전문가적 지식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Knight, 1996). Lavouvie-Vief, Hakim-Larson, DeVoe와 Schoeberlein(1989)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서 과거의 문제해결 경험, 부정적 사건에 대한 긍정적 재해석, 부정적 사건의 의미 중립화 같은 대처방식이 증가하게 된다. Lavouvie-Vief 등(1989)은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성숙이라 간주하고 문제 상황에서 성인노인은 성숙한 대처과정을 사용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Staudinger, Freund, Linden 및 Maas(1999)도 Berlin에 거주하는 성인노인이 문제 상황에서 주로 과거의 경험과 삶을 회고하는 대처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 성인노인은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제 상황에 봉착하지만 주로 성숙에 의한 정서적 과정을 많이 사용하고 또 다른 문제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합리적 과정도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본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처리 대처과정지각의 원 척도는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연령집단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항들을 검토하여 21문항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것은 두 집단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지만 원 척도에 충실한 한국어 척도개발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스트레스 대처과정에 연령과 성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각 연령과 성차를 포함하는 척도개발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척도의 재검토과정에서 문항의 의미 분석과 문화적인 차이도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각 개별문항은 세대간 차이에 따라 틀리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에 대처할 때 적절하다고 느끼는 행동을 한다”의 문항은 대학생의 경우 의도한대로 정서적 과정의 요인과 밀접한 연관을 보여주었으나($r = .67$), 성인노인의 경우에는 합리적 요인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47$).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성인노인에게 연구자가 의도한 문항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인노인이 정서적 과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상황특수성이 아닌 성숙과 같은 발달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비록 상관연구의 결과가 상황특수성의 가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성숙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것은 아니다. 성숙 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대학생과 성인노인이 자주 직면하는 문제 상황을

검토하고 이를 통제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또 장기적인 종단연구도 필요 할 것이다.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스트레스의 대처방식이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성인노인의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셋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대학생과 노인대학을 다니는 성인노인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연령의 차이 이외에도 “대학”이라는 생활환경 요인이 서로 혼합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일반 성인과 성인노인에게도 동일하게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제 중심적, 정서 중심적 대처전략이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나(Adler & Matthews, 1994, 참고), 정보처리과정과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의 관련성은 아직 미흡하다. 문제 상황에서 정보처리과정에 대한 이해는 스트레스 적응 훈련의 내용과 관리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혜은, 박 경 (2003). 여성의 우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 511-524.
- 장현갑 (1984). 격리성장과 행동장애: 생쥐를 대상으로 한 생리심리학적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한금선, 양승희, 전경구 (2003).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가 여대생의 스트레스 증상과 음주관련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 565-579.

- Adler, N., & Matthews, K. (1994). Health psychology: Why do some people get sick and some stay well?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5, 229-259.
- Aldwin, C. M. (1994).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An integrative approach*. New York: Guilford.
- Appley, M. A., & Trumbull, R. (1986). Development of the stress concept. In D. Meichenbaum(Ed.), *Dynamics of stress: Phys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perspectives* (pp. 3-18). Plenum Series on Stress and Coping.
- Blanchard-Fields, F., & Camp, C. J. (1990). Affect, individual differences and real world problem solving across the adult life span. In T. M. Hess(ed.), *Aging and Cognition: Knowledge organization and utilization*(pp. 461-497). Amsterdam: Elsevier.
- Burns, L. R., & D'Zurilla, T. J.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ceived information-processing styles in stress and coping situation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erceived modes of processing inventor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3, 345-371.
-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ub, J.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67-283.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s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osta, P. T., & McCrae, R. R. (1989). *The NEO PI/FFI manual supplement*. Odessa, Florid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osta, P. T., & McCrae, R. R. (1992).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 PI-R) and NEO five factor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orid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Folkman, S. (1984). Personal control and stress and coping processes: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39-852.
- Folkman, S.,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 Folkman, S., Lazarus, R. S., Pimley, S., & Novacek, J. (1987). Age differences in stress and coping processes. *Psychology and Aging*, 2, 171-184.
- Folkman, S., Lazarus, R. S., Dunkel-Schetter, C., DeLongis, A., & Gruen, R. J. (1986). Dynamics of stressful encounter: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92-1003.
- Kaplan, H. B. (1996).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tress. In H. B. Kaplan(Ed.), *Psychological stress: Perspectives on structure, theory, life-source and methods* (pp. 3-24). San Diego: Academic Press.
- Lazarus, R. S., & DeLongis, A. (1983). Psychological stress and coping in aging. *American Psychologist*, 38, 245-254.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Maison, J. W. (1975). A historical view of the stress field. *Journal of Human Stress*, 1, 6-12.
- McCrae, R. R. (1982). Age differences in the use of

- coping mechanism. *Journal of Gerontology*, 37, 454-460.
- McCrae, R. R. (1989). Age differences and changes in the use of coping mechanisms. *Journal of Gerontology*, 44, 161-169.
- Pfeiffer, E. (1977). Psychopathology and social pathology. In J. E. Birren & K. W. Schaie (Eds.),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1st ed., pp. 650-671).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Selye, H. (1956).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cGraw-Hill.
- Seligman, M. E. P. (1975). *Helplessness: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New York: Freeman.
- Taylor, S. E., & Aspinwall, L. G. (1996). Mediating' and moderating' processes in psychological stress: Appraisal, coping, resistance and vulnerability. In H. B. Kaplan(Ed.), *Psychological stress: Perspectives on structure, theory, life-source and methods* (pp. 71-110). San Diego: Academic Press.
- Vaillant, G. E. (1980). *Werdegaengige*. Reinbeck: Rowohlt.
- Vitaliano, P. P., DeWolfe, D., J., Maiuro, R. D., Russo, J., & Katon, W. (1990). Appraised changeability of a stressor as a modifie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hypothesis of fit. *Journ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82-592.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olff, C. T., Friedman, S. B., Hofer, M. A., & Mason, J. W. (1964).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defense and mean urinary 17-hydroxycorticosteroid excretion rates: A prospective study of parents of fatally ill children. *Psychosomatic Medicine*, 26, 576-591.

원고 접수: 2004년 8월 13일

수정원고 접수: 2004년 9월 11일

게재 결정: 2004년 9월 14일

Age Difference in Perceived Information Processing Styles in Stress

Jung-Mo Kim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Daegu University

In this study we have attempted to find the construct of perceived information processing styles and to explain age difference in coping with stress. According to factor analysis of Perceived Modes of Processing Inventory (K-PMPI) from students and older adults, information based coping styles consist of emotional processing based on feeling and intuition, rational processing by using systematic and logical reasoning to solve problems and automatic processing from past experience. These 3 factors constitute the same items for students and older adults, and all factors have shown sufficient internal consistenc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perceived information processing styles is seen as cognitive process as trait over lifespan. Compared to processing styles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students and older adults: students used rational processing, however older adults used emotional processing. The more students used rational processing, the less they used emotional processing. But older adults, who used emotional processing, tend to used rational processing. It is concluded that the dominant coping styles of emotional processing of older adult is not caused by specific situational demands, but it is due to individual factors like mature. It is discussed that individual experience and mature lead older adults to emotional processing.

Keywords: Perceived Mode of Processing Inventory, coping style in older adults, mature

부 록

정보처리과정지각 척도의 문항과 문항 번호

정서적 과정

1. 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추론하기보다 직감에 따른다.
5.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결정할 때, 나는 나의 직감에 따른다.
6. 나는 스트레스에 대처할 때 대부분 나의 느낌에 의존한다.
12. 스트레스에 대처할 때 논리나 증거보다 직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4.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소비하기보다 기분에 따라 결정한다.
20.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고보다 감정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27. 나는 감정에 따라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를 결정한다.
30. 스트레스에 대처할 때, 나의 본능적인 느낌을 믿는다.

합리적 과정

2. 나는 스트레스 상황에 관해 생각하고 새로운 해결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8.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대안을 생각한다.
15. 나는 대처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모든 가능한 대처방법을 찾는다.
16. 나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진다.
18. 나는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아이디어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가능성을 신중히 살펴본다.
19.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전에 나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신중히 살펴본다.
26.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정신적 노력을 많이 한다.
28. 나는 '사실'에 충실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논리적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자동적 과정

10. 나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린 적이 많다.
17. 나는 대처하는 방법을 금방 생각해낸다.
21. 나는 스트레스에 대처할 때, 전에도 비슷한 상황을 자주 접했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방식을 즉시 사용한다.
29. 나는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금방 떠오른다.
32.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금방 안다.